

올해산 노지감귤 제값받기 ‘산 넘어 산’

3차 관측결과 49만2000t 예상... 작년보다 5.2% ↑
비상품 비율 27%... 소비둔화·비상품 유통 등 악재

올해 노지감귤 3차 관측 조사결과 예상생산량은 49만2000t(47만5000~50만9000t) 내외로 예측됐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와 품질 저하 및 비상품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으로 제값을 받는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제주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위원장 한상헌)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발표한 올해 산 노지감귤 생산량 3차 관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14만t, 서귀포시 지역 35만2000t으로 올해산 노지감귤 예상량은 총 49만2000t(±3.5%)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생산량 46만7600t에 비해 2만4400t(5.2%) 늘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한 2차 관측 조사결과 예상생산량 52만8000t 보다 3만6000t 감소한 것이다. 8~10월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부패에 의한 낙과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나무 당 평균 열매수는 873개로 최근 5개년 평균 775개에 비해 98개 많고, 전년보다 79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극소과 및 극대과 착과율이 27%에 달했다. 전체 감귤 생산량 중 비상품 비율이 1/4을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30% 이상 흠이 있어 상품

으로 출하되기 어려운 중결점과율은 14.9%로, 전년보다 8.5%, 평년보다 4.6%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품 규격 이하인 극소과 비율이 15.9%에 달했다. 지난해는 6.2%였고, 5년 평균 6.3%인 것과도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올해 기상이 좋지 않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과규격과 비율도 최근 6년내 가장 낮은 비율(73%)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상품비율 역시 최근 5년 간 가장 낮았던 2014년 66.1%보다도 낮은 62.1%다. 전년보다도 13.4%, 평년보다도 10%나 적은 수치다.

그나마 당도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당도는 9.4브릭스로 측정됐다. 평년보다 0.1~0.2브릭스 낮았으나 산 함량은 높았다. 지난 2차 측정 값보다 당도가 높게 나와 맛이 떨어

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업기술원은 산함량이 0.8% 이하인 감귤은 장기저장을 피하고 3~4일 간의 예조를 거친 후 출하하고 비교적 산함량이 높은 감귤은 내년 설 명절까지 저장하면서 서서히 출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이 출하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착색이 잘된 열매를 우선 수확하고, 당도가 낮거나 산 함량이 높은 경우는 완숙 후 수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비 날씨에 전조등 켜 출근길 비가 내린 26일 오전 제주시 연북로에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 운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핵심 1차·관광산업 손 놓았나”

제주자치도의회, 2020년 도 예산안 심사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이 증액편성됐음에도 제주의 핵심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부문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속개한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의 2020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 관련기사 2면

이날 농수축경계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012년 13.6%에 달하던 제주 전체 예산 대비 1차산업 비율이 내년엔 9.7%로 급감한 것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대가 무너진 것이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

포시 남원읍)은 “1차산업 종사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가 무너졌다. 특히 감귤과 축산 관련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예산’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예산이냐”고 따져물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웅)는 전체 예산이 10.17% 증액됐는데 관광부문에산비중(관광진흥기금

포함)은 1.5%로 전년도 1.6%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주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이 침체하는데 관광비중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게 적정한가라고 질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제주도의 재정악화를 대비해 재정관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증설)사업이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오은지·송은범기자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세요

유료 판매부수 제주도내 1위, 신뢰도 1위 신문
환경 중심, 사람 중심, 칭찬하는 신문
뉴미디어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한라일보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제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꿈,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수습기자(신입) 0명

※ 재학생 지원 불가(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면허 사본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ty064@hallail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2019년 12월 9일(월) 18:00까지

문의: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32

“제주마, 몽골마 유래 아닌 독립적 품종”

농진청, 제주마- 해외마 집단 유전체 분석 결과
“지구력과 속도유지 관여 유전자 특이적 진화 확인”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는 몽골마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품종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마와 해외 말 집단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제주마의 독립적인 진화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마 품종인 제주마는 제주도에 서식하며, 1986년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됐다.

연구진은 진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마를 포함한 아시아 품종(몽골 토종마 3품종, 몽골 야생마), 유럽 품종(더러브렛) 등 6개 품종 제주마, 몽골 토종마 3개 품종(Galshar, Domestic Horse, Jarglant), 몽골 야생마(Przewalski), 더러브렛(Thoroughbred) 등 41마리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했다.

제주마는 유럽 품종 더러브렛 집

단과는 유전적 거리가 멀고, 몽골 토종마 집단과는 가깝지만 서로 다른 군집(무리)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립적인 품종으로 확인됐다. 또 D 유산소 호흡 D작은 키 D체형 D근육 발달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우선 선택됐다. 특히 지구력과 속도 유지에 관여하는 유전자(ACTN3, MSTN)는 제주마 집단에서만 특이적 진화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진은 제주마와 경주마 더러브렛의 심장, 폐, 근육(허벅지, 엉덩이)의 유전자 발현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주마는 더러브렛보다 적색근(붉은색 근육) 발현이 더 많았다. 제주마가 유산소 대사로 에너지를 얻어 오래 달리는 데 유리하고, 더러브렛은 무산소 대사로 단거리를 빠르게 뛰도록 진화했음을 뒷받침한다. 몸집이 작은 말 품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가 4개 조직에서 모두 더러브렛 보다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현 동물유전체과장은 “제주마가 몽골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마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진화했으며, 몽골마와 다른 유전적 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상윤기자

▶ 기획 7면...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가는 길

2019 제주해녀문화 콘텐츠문화상품 발굴지원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2019 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 공모전'의 수상작 시상식이 2019년 11월 29일(금) 메종글래드에서 진행되는 '제주해녀문화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상식이 끝난 이후 수상작품들은 구좌읍 하도리 해녀박물관에서 1년간 (2019년 12월 ~2020년 11월) 전시될 예정입니다.

최우수상 | 바당어멍

우수상 | 해녀의 바다 세트

우수상 | 제주해녀 그 물질의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